

세계마당페스티벌 30일 '팡파르'

제25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이하 마당페스티벌)이 오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목포 차안 다니는 거리 등 원도심 일대에서 열린다.

27일 목포시에 따르면 올해 페스티벌은 '여기영차 마당아'를 주제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풍성한 시민 참여형 콘텐츠로 기획됐다.

마당페스티벌은 마당극, 전통연희, 궁중극예, 인형극, 탈놀이, 파이어쇼, 마임, 마술, 국악, 가요, 클래식 등 남녀노소 누구나 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

마당페스티벌은 30일 광복 80년 대동축제로 문을 연다. 각종 대형 인형과 일제강점기 목포 명물 육단이를 비롯한 다양한 인물군상을 만날 수 있다.

프랑스 극단 아마니가 거리 퍼레이드에 참여한다. 프랑스 극단 아마니의 거리극 '세 얼굴의 오케스트라'는 세 개의 머리를 가진 대형 인형과 음악가들로 구성된 키메라 오케스트라가 관객과 함께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면서 유쾌한 퍼포먼스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프랑스 아비뇽축제, 살롱축제 등에서 호평을 받은 작품이면서 러시아, 스위스, 그리스의 연극축제에 초청됐으며, 인형이 결합된 독특한 형식으로 주목을 받았다.

국내 공연으로는 수학 개념을 마당극으로 극화한 예술공장 두레의 전통연희극 '마방진', 인간의 본성과 자유를 동물농장에 빚낸 창작집단 쟁이의 풍자탈춤 '그릇 넘차', 마리오네트 인형과 오토마타 오브제가 만나는 그림책 작가 박연철의 판타지 인형극 '헨젤과 그레텔 인 판타지', 비보잉과 거리예술을 융합한 에이런 크루의 '와작', 강원도 정선 무명 뗏꾼의 드라마틱한 생애를 그린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창작소리극 '뗏꾼' 등 국내 20개 유명 공연이 마당판을 신명으로 달군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시민 참여형 프



프랑스 극단 아마니 거리극 '세 얼굴의 오케스트라'

내달 1일까지 원도심 일대서 광팔홀라이브 등 콘텐츠 눈길 광복 80주년 목포광복탑 복원

젝트들이 주목받고 있다. 목포의 역사와 감성을 담아낸 특별 프로그램 '목포로컬스토리'는 4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1945년 광복 직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목포 광복탑'을 80년 만에 재현한다.

광복 80년을 기념해 시민이 직접 수제맥주를 만들어 축제 당일 시민과 함께 '목포광팔홀라이브'로 맥주파티를 연다. 전남서남권 풍물패 200여명이 모여 80년 전의 해방의 울림을 기념하는 '목포풍물놀이한마당'을 마련했다.

목포 출신 박화성의 소설 '호박'의 시공간을 확장해 각색한 시민 야외극 '엄마의 해방일기'로 목포 죽동의 콩나물 동네를 소재로 감동을 전한다.

이밖에도 목포원도심심상인회와 함께하는 야시장, 프리마켓, 오쇼잉 경품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온 동네를 마당 무대로 밝힌다.

목포=박승경 기자



창작집단 쟁이의 창작탈춤 '그릇넘차'

'목포해상W쇼' 31일 평화광장 해상무대

목포시는 목포해상W쇼 2회차 정기공연이 오는 31일 오후 8시부터 평화광장 해상무대에서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월드랜드 목포'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강렬한 해상무대 공연과 다채로운 불꽃 연출이 어우러져 목포 밤바다의 환상적인 매력을 돋보이게 할 예정이다.

해상무대 공연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록 보컬리스트 '김경호 밴드'가 참여해 폭발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불꽃쇼는 10여 분간 밤하늘을 수놓으며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해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공연을 마련했다"며 "목포해상W쇼를 관람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목포해상W쇼 2회차 정기공연이 31일 오후 8시부터 평화광장 해상무대에서 열린다. 목포시 제공

내달부터 임대차 거짓·지연신고 '과태료'

목포시는 6월부터 거짓신고, 지연신고 등 법을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단,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6월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임대차 신고는 거래당사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대면·비대면으로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와 동시에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미신고한 경우, 기간 및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계약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포=박승경 기자

에너지 전환 대응 지역발전 해법 모색

해상풍력 육성 역량강화 세미나

목포시는 최근 목포오션호텔에서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미나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목포시가 주최하고, (재)녹색에너지연구원과 (사)전남풍력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풍력산업 관련 기업과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전남풍력산업협회의 성과 및 비전 발표를 시작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상풍력 트렌드와 목포시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DNV) △해상풍력 R&D사업 추진현황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등 다양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세미나에서는 해상풍력 산업의 발전방향과 전략에 대한 의견 교류가 이루어졌다. 목포시향은 해상풍력 특화 항만으로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인근 배후단지까지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며, 공급망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국내 해상풍력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



목포시가 목포오션호텔에서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목포시 제공

다. 목포시는 해상풍력 관련 연구개발과 통합관제, 기업지원을 위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다. 목포시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를 국가 해상풍력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세미나는 목포시가 국내 해상풍력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됐다"며 "목포시향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항만 인프라 확충,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세월호생명기억관 건립 지역상생협의체 회의

정부 지원사업 방향 등 논의

목포시는 최근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업 추진 중인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가칭)' 건립과 관련해 지역상생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상생협의체는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주관으로, 지난달 열린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에서 지역민의 요청에 따라 구성됐다. 협의체에는 고하도 주민대표, 유가족, 목포시, 해양수산부,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생명기억관을 활용한 지역상생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하도 어촌계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구성, 지역 발전을 위한 정

부 지원사업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지역상생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세월호 선체처리 이행사업 공유수면 매립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회의는 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열릴 계획이다.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 건립 사업은 현재 시설계 용역 단계에 있으며, 2026년 착공과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회의는 지역 주민과 유가족, 관계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상생 방안을 논의한 첫걸음이었다"며 "생명기억관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승경 기자

최고의 품질과 성실 시공으로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엠에이주식회사

화장실
칸막이

실내벽체
마감패널

이동식
화장실

벽천장용
흡음재

조달청등록업체

TEL. 062) 710-1800 FAX. 062) 710-6662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창동 730-8